미국, 키스톤 송유관 건설 반대시위

30개주 4만명 동시다발 집회 …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책도 강력 촉구

미국 워싱턴에서 2월17일(이하 현지시간) 송유관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.

미국 전역 30여개 주에서 모인 환경단체 회원 등 약 4만명은 워싱턴 의사당 주변 야외공원인 내셔널 몰에서 집회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.

행사는 세계적 환경단체 <Sierra Club>을 포함해 전국 및 지역 규모의 환경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 <Forward on Climate>이 주최했다.

주최측은 시위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라고 보고 있다.

시위의 중심 의제는 총 70억달러가 투입되는 <키스톤XL> 송유관 건설사업이며, 키스톤XL 송유관은 캐나다 앨버타의 오일샌드에서 채취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 정유공장으로 수송하는 설비로, 길이 2736㎞에 미국 6개 주를 통과한다.

양국 환경론자들은 오일샌드 개발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.

시위대는 <파이프라인이 아닌 생명선(Lifeline)을>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업 반려를 강력히 촉구했다.

집회에 참석한 밴 존스 전(前) 백악관 녹색일자리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“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당신이 한 모든 좋은 일들은 홍수와 불길, 폭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게 될 것”이라고 질타했다.

알렉 볼드윈, 수전 서랜든, 모건 프리먼,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, 요코 오노 등 유명인사들도 시위대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.

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월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송유관의 앨버타-네브래스카 스틸시티 구간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반려한 바 있으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.

그러나 USA투데이에 따르면, 송유관의 남쪽 부분인 오클라호마 커싱-걸프해안 구간은 2012년 미국 육군 공병병과로부터 건설 승인을 얻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2/18>